

순천시,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 복지 분야 '6관왕' 달성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우수상 등 총 4000만원 상당 포상금

복지분야 전국 유일 다관왕...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입증

순천시가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에서 총 6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최근 밝혔다.

수상 분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상, ▲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우수상, ▲자활사업 우수상,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문제해결 역량강화분야 우수상, ▲한국장애인 인권상 수상으로 6관왕을 달성했다.

모두 6개 분야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에 순천시가 거둔 6관왕은 복지분야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다관왕 최고의 성적으로, 순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임이 입증돼 순천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순천시는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적·결과의 충실성, 적절성, 우

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5개 분야, 15개 평가지표)를 평가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분야에서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노력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순천시는 순천형 생활안정비, 재

가료급여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1:1 행복드림팀, 순천 SOS센터 운영, 순천아이꿈통장, 기적의 놀이터 조성,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조성,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이웃사촌, 순천청년 센터운영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자체사업 운영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남 유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지자체로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 구축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천시는 올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보편 다량한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고흥유자, 다양한 식품소재 산업화로 B2B 시장 공략

내년 농식품부 전국 공모사업 15억원 한성푸드 최종 확정



고흥군은 고흥유자 다양한 식품소재 산업화로 B2B 시장 공략 다각화에 나섰다.

식품소재 반가공 산업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농산물의 수요확대와 수급조절은 물론 농가소득을 증대

하는 농식품부 전국 공모 사업에 유자가공 전문 기업인 한성푸드가 최종 확정되어 사업비 15억원(국비 450백만원)을 확보했다는 것.

그동안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대표 김종남)은 반제품(당질임)과 유자과즙 형태로 국내의 식품기업

및 프랜차이즈 점에 소규모로(국내 기업 10개소, 해외기업 4개소) 공급하였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유자생과 추출, 농축, 살균, 충전 등 식품소재 산업화 시설이 도입되면 유자소스, 유자음료, 유자주스, 유자오일, 유자향료, 유자식초 등 연계 상품으로 소재화하여 국내 B2B 시장은 물론 해외의 다변화 시장에서 고흥유자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농가의 안정된 가격지지로 유자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성푸드는 우리나라 차류 업계에서 최첨단 기공공장 및 시설장비 특허를 보유하고 해협(HACCP)시설, 말레이시아 이슬람(JAKIM), 할랄(HALAL), 이스라엘 코셔(KOSHER), FSSC22000 등 국제 인증으로 최고의 가공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광양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23일까지 접수...확진자 방문 업소 84개소 대상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확진자 운영점포 포함) 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하거나 매출이 감소하

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84개 점포로 시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업소는 오는 23일까지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적

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전후 1~2개월 간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자료(매출감소 확인)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등으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757개 기관 대상 평가 공공요금 감면 확인 시스템 호응

여수시가 최근 2020년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 교육청 등 7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비

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면서, 우수기관 표창대상을 공개하고, 수상소감 및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시민이 민원 업무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감축과 편의를 위해 34개 기관이 제공하는 162종의 구비서류를 기관끼리 연계하여 이용하는 제도다.

특히 여수시는 올해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자격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절차관소화로 시민들의 호응

을 받았다. 인규사책지원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 사무명과, 각종 민원서식 감축 이용사무명을 발굴하는 등 민원인의 제출 서류 감축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보성군 "농업부산물 소각 말고 무료로 파쇄하세요"

미세먼지 저감·산불방지 위해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



보성군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남은 부산물의 습관적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방지 및 농업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영농부산물 파쇄기 4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 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사업은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화재 방지 및 농업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영농부산물 파쇄기 4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3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을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의 날'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각 마을을 방문해 잔가지 파쇄기 사용 방법, 영농 부산물 소각 자체와 잔가지 파쇄기 활용 안전교육, 시연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 부산물 파쇄는 미세먼지 저감, 동절기 불법 소각 근절 및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농업 잔재물 퇴비화로 파쇄물을 양질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운영계(850-5717)로 연락하면 된다. 보성=김택영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